

# 韓, 인도시장 공략 본격화... 투자·창업·거점 협력망 넓힌다

## 중기부, 韓-인도 벤처투자 및업

양국 VC협회, 첫 MOU 체결  
코스포·인도상의, 스타트업 협력  
K-파운더로 현지 진출 지원  
중진공, 푸네 베이스캠프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인도와의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파트너간 시너지 강화, 시장 정보 및 노하우 공유, 인력 교류 등을 광범위하게 모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 벤처캐피탈협회는 17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연결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한-인도 벤처투자 및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약 99억 달러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형성하는 등 우리 벤처기업들이 놓쳐서는 안 될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 구르가온 하얏트 플레이스 구르가온 우디오 그 비하르에서 인도상공회의소연합(FICCI), 유니콘인큐베이터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포

특히 이날 행사에선 한국 벤처캐피탈협회(KVCA)와 인도 벤처캐피탈협회(I VCA)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최초의 협력 사례를 만들었다.

두 단체는 MOU를 계기로 ▲양국 기업의 투자유치 및 진출 지원 ▲벤처생태계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 ▲투자자 간 네트워크 확대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투자자 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장은 "양국을 대표하는 벤처캐피탈협회 간 최초의 업무협약은 민간 투자 분야 협력의 의미있는 출발점이자 양국 벤처생태계를 연결하는 물꼬를 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가 벤처생태계 협력·교류를 확대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혁신 생태계로 함께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지난 15일에는 인도 구르가온에서 'K-파운더 네트워크 in 인도' 제1차 포럼도 열었다.

'K-파운더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창업가들의 자생적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결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현지에 먼저 진출한 선배 창업가와 국내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현지 시장 정보와 사업 경험 공유, 현지 파트너 협력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 중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K-파운더 네트워크 in 인도'는 지난 4월 발표했다. 중기부는 인도를 시작으로 프랑스,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중진공은 인도 마하리슈트라주 푸네에 있는 펄프리 친치와드 대학교(Pimpri Chinchwad University)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진공-푸네(KOSME-PUNE) 베이스캠프'를 이달 초 열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인도 진출과 현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현대L&C의 원목마루.

## 현대L&C

### 유럽 전자재 독점 공급 하이엔드 시장 정조준

유럽산 마루·수전 등 유통 나서

현대L&C가 수도권 재건축 단지와 강남권 하이엔드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전자재 B2B 영업에 적극 나선다.

기존 프리미엄 창호 레하우(REHAU)와 엔지니어드 스톤 칸스톤과 함께 유럽 원목마루와 수전을 추가한 전자재 B2B 통합 패키지를 전면에 내세워 영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 종합 전자재 기업 현대L&C는 최근 이탈리아 목재 전문기업 '플로리안(Florian)', 독일 욕실 자재 전문기업 '코이코(KEUCO)'와 각각 원목마루와 수전에 대한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L&C 관계자는 "수도권 재건축 단지와 신규 분양 읍면 시장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자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유럽 브랜드와의 독점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플로리안은 50년 넘게 원목 가공 사업을 이어온 업체로, 이탈리아 현지에서 100% 생산되는 프라임 AB(Prime AB) 등급의 참나무(Oak) 원목마루가 대표 제품이다. /김승호 기자

# 삼성, 갤럭시·가전 앞세워 '일상 건강관리' 시장 공략

## 파리 '비바테크 2026' 참가

삼성헬스 7.0서 생체징후 기능 선행  
위치·냉장고·펫케어로 건강관리 확대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테크 무대에 헬스케어 앞세워 처음으로 발을 들였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위치, 냉장고, TV를 통합 건강관리 플랫폼 '삼성 헬스'로 연결해 병원 밖 일상에서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17일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스타트업·테크 박람회 '비바테크(VivaTech) 2026'에서 AI 기반 통합 건강관리 비전 '커넥티드 케어(Connected Care)'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바테크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럽 최대 규모의 테크 행사에서 삼성 헬스를 중심으로 한 통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2026' 삼성전 시판 미디어 파사드에 '삼성 헬스'의 5대 영역인 수면·활동·식이·마음 건강·생체 징후 아이콘을 표현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삼성전자

합 건강관리 경험을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비바테크에는 전 세계 40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행사는 '건강과 장수'를 포함한 8개 핵심 분야로 꾸러지는데, 삼성전자는 이 가운데 헬스

케어에 전면에 나섰다.

전시의 중심은 통합 건강 플랫폼 '삼성 헬스'다. 삼성 헬스는 수면과 활동, 식이, 마음 건강, 생체 징후 등 5대 영역에 걸쳐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며 갤럭시 스마트폰·위치와 연동된다. 이를 구현한 부스는 미디어 파사드와 '삼성 커넥티드 케어 에코시스템' 존, '오픈 케어 랩' 존 등 3개 구역으로 꾸러졌다.

특히 에코시스템존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위치, 삼성 헬스 앱이 하나로 연결돼 능동적이고 개인화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선보인다.

삼성 헬스는 이번 전시에서 7.0 신기능 5종을 새로 공개한다. ▲생체 징후(Vitals) ▲심장 건강 점수 ▲일일 유산소 부하 ▲신체 체력 지수 ▲청력 측정 기능이다. 이 가운데 생체 징후 기능은 사용자가 갤럭시 위치를 일주일 이상 착용한 채 수면하면 심박

수와 심박변이도, 호흡률, 피부 온도, 혈중 산소 포화도 등 5개 지표를 추적해 기준값 대비 변화가 감지될 때 알림을 준다.

건강관리 영역은 스마트폰·위치를 넘어 가전과 반려동물로도 넓어졌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의 'AI 푸드 매니저'가 식재료를 관리하며 레시피와 구매 품목을 제안하고, 반려동물 솔루션 '라이펫'은 사진 한 장으로 치아 질환과 슬개골 탈구, 백내장 같은 질환을 판별한다. 의료 현장과의 연결도 강화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수한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켈스(Xealth)는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해 디지털 건강관리 솔루션을 처방하도록 돕는 플랫폼으로, 삼성전자는 이를 갤럭시 기기와 연동해 병원 밖에서도 환자 관리가 이어지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구명정 기자 koogja\_lee@

## 대한전선, 1463억 국가 전력망 수주

동해안 전력 수도권 있는 핵심 사업

대한전선이 국가 전력망 사업 수주를 통해 HVDC 사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술 개발부터 생산·시공 역량까지 내재화한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외 초고압 송전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대한전선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동서울 건설공사(EP2단계) 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1463억원이다.

이번 사업에서 대한전선은 500kV HVDC XLPE 케이블과 관련 부속 자재의 제조·공급부터 시공까지 턴키(Turn-Key) 방식으로 수행한다.

동해안~동서울 HVDC 사업은 동해안 지역의 원자력·화력발전과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까지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국가 핵심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500kV급 HVDC 전력선 2개 공구와 70kV급 중성선 1개 공구로 구성되며 대한전선은 약 86km 규모의 500kV HVDC XLPE 케이블 시스템을 공급·설치할 예정이다.

대한전선은 국내 최초로 500kV HVDC 케이블 시스템을 개발·상용화하고 북미 시장 등에 공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500kV 전류형 HVDC와 525kV 전압형 HVDC 케이블 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하며 초고압직류송전 분야로 기술 경쟁력을 넓혔다.

이들 시스템은 모두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됐다.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 중기중앙회, LG CNS와 中企 AI 전환

2년간 42억 투입해 교육·기술 등 지원

중기중앙회가 LG CNS와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는 LG CNS와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에서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 CNS는 중소기업의 AX 지원을 위해 2년간 총 4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교육 ▲기술 ▲유통·마케팅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우선 중소기업 경영진을 위한 AI 수업 및 컨설팅을 서울 강서구 LG CNS 마곡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AI 도입 기준부터 AX 활용법까지 다룰 예정이다.

기술 지원은 정부의 '대·중소 상생형 A

X 선도모델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중기중앙회가 선정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부터 AI 모델 개발·적용, 시스템 통합 전 과정에 LG CNS의 인력과 기술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제조실행시스템(MES)·통계적 공정 관리(SPC)와 제조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결합한 '메뉴팩처링 AX 스타터 패키지'를 구축한다.

LG CNS의 AI 마케팅 솔루션으로 2년간 중소기업 100개사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 입점도 뒷받침한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중소기업의 AX 전환은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교육부터 제조혁신, 마케팅 확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끄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